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유가 하락, 금리 안정화, 대형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

미국 증시 리뷰

8일(화), 9일(수) 미국 증시는 미 증시는 중동 정세 완화, 경기 지표 호조세로 인해 유가와 금리가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대형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지수 상승세를 견인하며 3대 지수는 상승 (다우 +1.33%, S&P500 +1.69%, 나스닥 +2.05%)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는 미 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 이후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로건 총재에 따르면, 급진적인 통화 완화 정책은 과도한 수요 견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발이 우려될 수 있다고 언급. 특히, 현재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가운데 고용시장과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며 완만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경제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전미자영업연맹(NFIB)에서 발표한 9월 소기업 경기낙관지수는 91.5pt를 기록하며 전월치(91.2pt)를 상회, 한 달만에 상승 전환. 특히, 세부지수 중 불확실성 지수가 103.0pt를 기록하며 전월치(92.0pt)에 비해 11.0pt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 기록. 또한, 향후 6개월 안에 투자 지출을 할 계획이 있다는 순응답 비중은 19%로 전월치에 비해 5%p 하락. 집계측에 따르면, 소기업체들은 미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및 자금 조달 압박으로 인해 자본지출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언급.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모델에 따르면,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환산 기준 3.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금번 수치는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보고서를 비롯한 경기 지표를 반영함에 따라 지난 1일 발표된 2.5%에서 무려 0.7%p 상향된 결과. 이처럼,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시키는 지표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미국채 금리는 4%대를 상향 돌파하고 달러화 또한 강세를 보이는 상황.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애플(+1.67%), 마이크로소프트(+0.66%), 아마존(+1.34%)는 상승한 반면, 알파벳(-1.53%), 테슬라(-1.41%), 엔비디아(-0.18%), 메타(-0.40%)는 하락하며 차별화 양상.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9월 FOMC 의사록에서는 지난달 미 연준의 빅컷(50bp 인하)에 동의하지 않은 연준위원들이 일부 있었다는 점이 확인. 50bp 금리 인하에 동의한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빅컷이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 반면, 25bp 금리 인하를 선호한 위원들은 빅컷이 인플레이션 재발, 불필요한 경기침체 시그널 주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점진적 금리 인하가 보다 더 적절한 조치라고 언급.

미 연준의 빅컷 단행 이후 최근 다수의 연준위원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점진적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상황. 여기에 최근 발표된 9월 고용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일각에서는 11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도 제기. 따라서, 현재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가 시장 참여자가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되기 위해 금일 저녁에 발표될 미 CPI 결과가 예상치 수준으로 발표되어야 할 필요.(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CPI 2.3% YoY, 근원 CPI 3.2% YoY).

8일(화) 국내 증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 4% 상향 돌파,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 급등, 삼성전자 잠정실적 부진으로 인한 반도체 매도세 등의 요인으로 양 지수는 하락 마감 (코스피 -0.61%, 코스닥 -0.35%)

금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실적 불확실성 해소, 전고점에 근접한 엔비디아를 비롯 미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다만, 여전히 국내 증시 유동성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음에 따라 시총 비중이 큰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간 수급 줄다리기가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

한편,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부진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의 실적 불확실성이 금번 3분기 잠정실적 발표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 물론, 이번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실적은 매출액 79조원(+7% QoQ, +17% YoY), 영업이익 9.1조원(-13% QoQ, +279% YoY)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인 10.8조원을 약 15.5% 하회. 일각에서 우려했던 7~8조원 수준의 영업이익까지는 기록하지 않은 가운데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한 실적 결과와 이례적으로 발표한 삼성전자의 실적 설명문을 통해 주가 하방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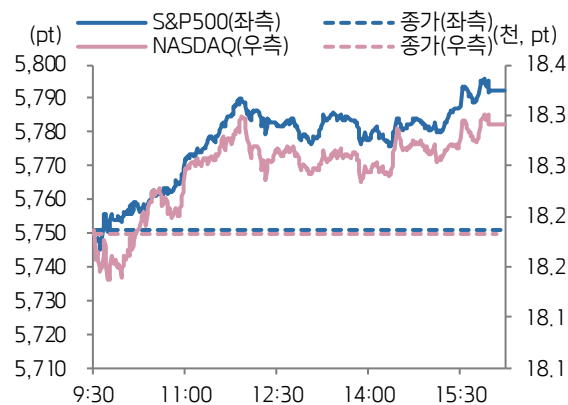
그럼에도, 이날까지 외국인인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며 현재까지 21거래일 연속 매도세 지속중. 코스피 200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현재 -3.8%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200은 +5.0%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 중. 즉, 향후 국내 증시의 흐름은 반도체 섹터멘트를 결정하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잠정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업종의 반등세가 나타

날지에 주목해볼 필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종목장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한국시간 9일 발표된 FTSE 러셀의 하반기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최종 결정. 편입 결정 이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걸쳐 실제 한국의 WGBI 지수 편입 시점은 내년 11월이 될 것으로 명시됨. 전세계 WGBI 추종 자금은 약 3조 달러로 추정되는 가운데 2.2%의 한국 비중을 감안시 국내 채권시장으로 자금 유입 규모는 약 600억 달러(한화 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금번 WGBI 지수 편입 결정은 국고채 금리 안정, 외국인 자금 유입, 외환 수급 개선에 따른 환율 안정 등 국내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중장기적 수급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또한, 당초 공매도 금지로 인해 관찰대상국 지정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금번 발표에서 국내 증시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선진시장 지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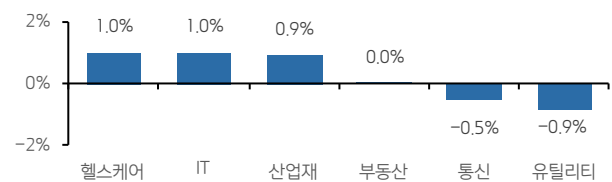
한편,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중국 본토 증시 중심으로 연휴 기간의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급등세를 보이며 출발하였으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새로운 내용의 추가적 부양책이 제시되지 않자 실망 매물 출회되며 하락(2거래일 누적, 상해 종합 -2.3%, 항셱 -10.7%). 결국, 부양책 기대감이 견인한 중화권 증시의 급등세가 일정 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실제 경기 지표 반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중화권 증시는 추가적인 부양책 뉴스플로우에 시시각각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오는 12일 중국 재정부의 추가 재정정책 강화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킬만한 부양책이 발표될 경우 재차 중화권 증시로의 쏠림 현상에 유의할 필요.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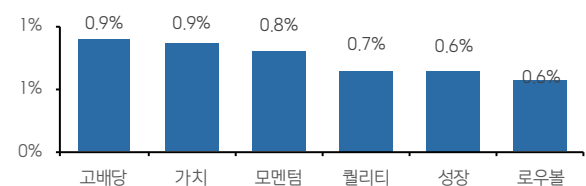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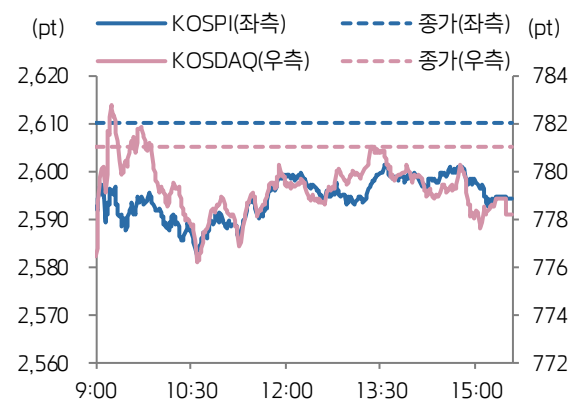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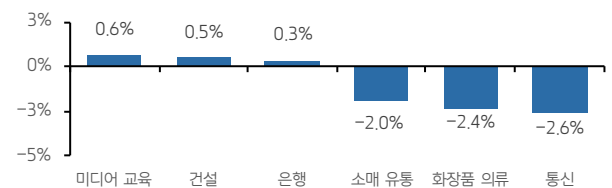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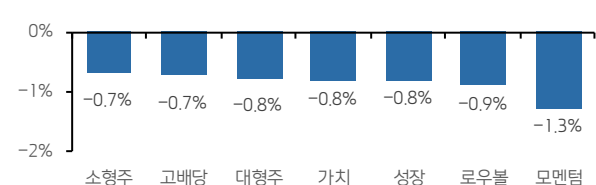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9.54	+1.67%	+19.68%	GM	47.93	+4.17%	+34.52%
마이크로소프트	417.46	+0.66%	+11.62%	일라이릴리	919.74	+0.66%	+58.55%
알파벳	161.86	-1.53%	+16.16%	월마트	80.40	+0.87%	+54.48%
메타	590.51	-0.4%	+67.33%	JP모건	213.42	+1.27%	+28.46%
아마존	185.17	+1.34%	+21.87%	엑손모빌	122.09	+0.04%	+25.25%
테슬라	241.05	-1.41%	-2.99%	세브론	149.65	+0.61%	+3.59%
엔비디아	132.65	-0.18%	+167.92%	제너럴일렉트릭	80.40	+0.9%	+54.5%
브로드컴	185.95	+2.89%	+68.38%	캐터필러	396.19	+2.12%	+35.66%
AMD	171.02	-1.03%	+16.02%	보잉	149.37	-3.41%	-42.7%
마이크론	101.70	-0.82%	+19.52%	넥스트에라	80.58	+0.1%	+35.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94.36	-0.61%	-2.29%	USD/KRW	1,346.00	+0.11%	+4.5%
코스피200	344.23	-0.9%	-3.84%	달러 지수	102.89	+0.33%	+1.54%
코스닥	778.24	-0.35%	-10.19%	EUR/USD	1.09	-0.37%	-0.91%
코스닥150	1,330.76	-0.24%	-4.5%	USD/CNH	7.09	+0.27%	-0.46%
S&P500	5,792.04	+0.71%	+21.43%	USD/JPY	149.31	+0.75%	+5.86%
NASDAQ	18,291.62	+0.6%	+21.85%	채권시장			
다우	42,512.00	+1.03%	+12.8%	가격	DTD(bp)	YTD(bp)	
VIX	20.86	-2.61%	+67.55%	국고채 3년	2.935	-2.2bp	-21bp
러셀2000	2,200.59	+0.26%	+8.56%	국고채 10년	3.080	-2.1bp	-9.5bp
필라. 반도체	5,321.90	+1.06%	+27.46%	미국 국채 2년	4.022	+6.3bp	-22.8bp
다우 운송	15,951.68	+0.56%	+0.33%	미국 국채 10년	4.073	+6.1bp	+19.4bp
상해종합	3,258.86	-6.62%	+9.54%	미국 국채 30년	4.341	+4.7bp	+31.3bp
항생 H	7,365.59	-1.58%	+27.69%	독일 국채 10년	2.257	+1.4bp	+23.3bp
인도 SENSEX	81,467.10	-0.21%	+12.77%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4,982.57	+0.68%	+10.2%	WTI	73.24	-0.45%	+3.67%
MSCI 전세계 지수	848.64	+0.46%	+16.73%	브렌트유	76.58	-0.78%	-0.6%
MSCI DM 지수	3,694.30	+0.42%	+16.57%	금	2,626.00	-0.36%	+21.57%
MSCI EM 지수	1,156.23	-2.33%	+12.94%	은	30.67	+0.23%	+27.34%
MSCI 한국 ETF	63.56	+0.27%	-3.01%	구리	439.95	-1.28%	+13.08%
디지털화폐				BDI	1,860.00	-2.46%	-11.17%
비트코인	60,393.26	-3.14%	+42.08%	옥수수	421.00	+0.06%	-16.39%
이더리움	2,354.49	-3.58%	+3.16%	밀	599.00	+0.71%	-10.46%
				대두	1,020.25	+0.39%	-18.1%
				커피	250.05	+0.75%	+32.7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